八角亭

식수대 유감

이 혜 정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앞에는 작은 동산이 있다. 버스 정거장에서 좌측으로 200m 쯤 이차선 가로수 길을 주욱 따라 걸어가면 막다른 곳에 한적하게 자리잡은 학교앞의 작은 동산은 이를테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녹지대인 셈이다.

얼마전 몹시 앓고 난 후에 학교에 간 딸애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올 것이 걱정되어 하교시간에 맞추어 학교앞 놀이동산의 벤치에서 기다렸다.

라일락·철쭉·개나리·백일홍·소나무…….
아직 많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곳에 자리잡아 심은 나뭇잎들이 여름 햇살에 반짝였다. 풀밭에는 토끼풀이 무성하고, 노란 민들레가 앙징스럽게 얼굴을 쏘옥 내밀고 있다. 너무 자라서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쑥이 짓푸르고 싱싱하다. 메뚜기가 팔딱 뛰어간다.

등나무밑 벤치에 앉아서 학교 운동장도 바라보고, 놀이터도 바라보며 한가로운 느낌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무더기 건강한 아이들이 교문을 빠져 나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발견한 딸아이가 날은듯이 뛰어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고,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고 모래가 엉겨있다. 흙이 잔뜩 묻어 있는 손만이라도 씻기고 싶어서 놀이터의 식수대로 갔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식수대에는 수도꼭지가 없다.

'웬일이람! 식수대를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만들어 놓았으면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든지'

그러고보니 지난 봄에 청소년사생대회가 열렸던 백운공원의 식수대에도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 수채화를 그리는 딸아이는 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공원 근처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음료수 몇 병을 사고 물을 얻어다가 사용했었다.

그 전에 싸이클경기장에서 열렸던 사생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 넓은 싸이클경기장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스켓치를 하는 동안에 경기장 입구에 딱 하나 밖에 없는 화장실의 하나밖에 없는 수도에서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었다.

10여년전에 비해 도심속에 작은 휴식공간이 군데군데 자리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애써 만들어 놓은 식수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어쩌면 당국에서는 수돗물을 나오게 해 놓으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용한 후 잠그지 않아서 생길 낭비를 막기 위해 아예 꼭지를 없애버렸는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그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았다면 정말 씁쓸한 느낌이다.

오늘 석간을 보니, 궁정동 안가를 헐고 조성한 「무궁화동산」 개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식수대에서 머리를 숙이고 수돗물을 마시는 사진이 실려 있다.

물이 흐르고 있어 「무궁화동산」의 식수대는 사진속에서도 깨끗하고 멋있어 보인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앞 동산의 식수대에도, 백운공원의 식수대에도, 우리동네에 있는 놀이터의 식수대에서도, 한여름 더위를 씻어줄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질 수는 없을까?

「소중한 물! 아껴 씁시다」라는 작은 팻말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본회회원·인천 남동구·주부〕